

넙치 양식업의 수급문제와 2006년 전망

강 종 호 · 김 정 협 · 백 은 영 / 수산업관측센터

<차 례>

- I. 서 론
- II. 넙치 양식업의 생산 및 수출입 동향
- III. 양식 넙치의 가격동향
- IV. 2006년 전반기 수급 전망
- V. 결 론

I. 서 론

양식 넙치는 국내 양식어류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이 생산되는 어종으로 2005년에 양식어류 총 생산량의 55.4%인 45,133톤이 생산되었다. 수산업관측센터의 소비자대상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활어회 선호 어종에 있어서도 총 응답자의 35.2%가 넙치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¹⁾. 이처럼 양식 넙치는 우리의 생선회 소비문화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어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수산업관측센터에서는 2004년 10월 「김 관측 월보」를 시작으로 2005년 7월에는 「넙치 관측 월보」를 발간함으로써 양식수산물의 수급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과 진단을 하고 있다. 이전에는 수급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목표 설정 없이

수급정책이 이루어져 왔고, 개별 양식경영체에 있어서도 불확실한 시장 및 생산정보에 의존하여 양식경영을 영위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수산업관측사업이 시작되면서 해당 관측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적인 수급진단과 수급목표의 설정이 가능하게 되었고, 양식경영과 정책에서도 목표 설정과 관리를 통한 목표경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넙치 관측사업에 있어 가장 큰 이정표 중의 하나가 수급의 이상 징후에 대한 조기 진단과 이를 통한 해법의 도출이다. 과거 수급의 이상 징후에 대한 대처가 늦어 큰 피해를 본 사례는 많다. 대표적인 경우가 2003년의 조피볼락

1) 수산업관측센터, 「넙치 관측월보」, 2월호, p. 8, 2006. 2. 1.

가격파동인데, 당시 조피볼락의 가격 급락으로 동 양식업은 붕괴의 위기까지 이르렀다. 이후 태풍과 적조 등의 피해에 의한 자연적인 물량 감소로 다시 가격이 회복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²⁾ 하지만 그와 같은 자연적인 재해로 물량의 대폭적인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것이다. 이처럼 수급에 대한 이상 징후의 조기 진단과 전망이 없이 적절한 수급조절은 어려우며, 양식경영 또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투기성이 조장되는 것이다.

본고는 2005년 6월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넙치 관측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2006년 전반기의 수급상황을 진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식 넙치의 생산동향 및 가격동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진단된 수급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였다.

II. 넙치 양식업의 생산 및 수출입 동향

1. 출하동향

2005년의 어류 양식 총생산량은 81,421톤으로 추정되었는데, 이 중에서 넙치가 45,133톤으로 55.4%를 차지하였다. 조피볼락은 21,297톤으로 26.2%, 기타 어종이 14,991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18.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업관측센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넙치를 양식하고 있는 어가는 약 700여 개로 추산되는데, 지역별로 제주와 완도에 각각 280

여 개, 240여 개가 분포되어 있다. 그 외에는 동해안 그리고 전남 일부지역, 경남 일부지역에 산포되어 있다. 전국 육상수조식 넙치 양식장의 총 수조면적은 248.26ha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 제주와 완도를 합친 면적이 200.8ha로 전체 면적의 약 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넙치 양식업은 제주와 완도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특성을 보이며, 이 두 지역이 넙치의 수급을 좌우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음의 <그림-1>은 최근 3년 동안의 넙치 출하량을 연도별 및 월별로 나타낸 것이다. 연도별로 출하된 넙치의 물량은 2003년 36,334톤에서 2004년에는 35,806톤으로 1.5% 감소한 반면, 2005년의 경우에는 출하량이 전년보다 26.1% 증가한 45,133톤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월별로는 11월부터 익년 4월까지의 출하량이 평균 57.2%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연말의 경우, 부족한 결제자금의 확보와 더불어 저수온기의 성장 저하를 우려한 양식어가들이 출하량을 늘리기 때문이다. 1월부터 4월까지의 경우는 5월의 집중 치어 입식에 대비하여 수조를 비우기 위해 출하 물량이 늘어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5년은 예년과는 다소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 2003년과 비교할 경우 3월과 4월에 동 연도의 전체 출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2%로 1/4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이는 2003년의 동 기간보다 물량에서

2) 수산업관측센터, 「수산물 수급정보」, 11월호, pp. 4~7, 2005. 11.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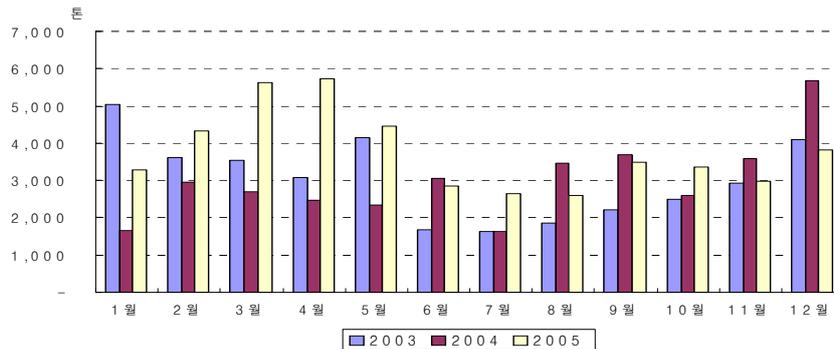
〈표-1〉 최근 3년간의 어종별 양식 생산량

단위 : 톤, %

구분	전체 생산량		넙치		조피볼락		기타 어류	
	생산량	비율	생산량	비율	생산량	비율	생산량	비율
2003년	72,393	100.0	34,533	47.7	23,771	32.8	14,089	19.5
2004년	64,476	100.0	35,806	55.5	19,576	30.4	9,094	14.1
2005년	81,421	100.0	45,133	55.4	21,297	26.2	14,991	18.4

주 : 2004년과 2005년의 양식 넙치 생산량은 수산업관측센터의 추정치.
 자료 : 2003년 어업생산통계, 2004~2005년 수산업관측센터 설문조사 결과.

〈그림-1〉 최근 3년간의 연도별·월별 넙치 출하량



자료 : 2004~2005년은 수산업관측센터 설문조사 결과, 2003년은 어업생산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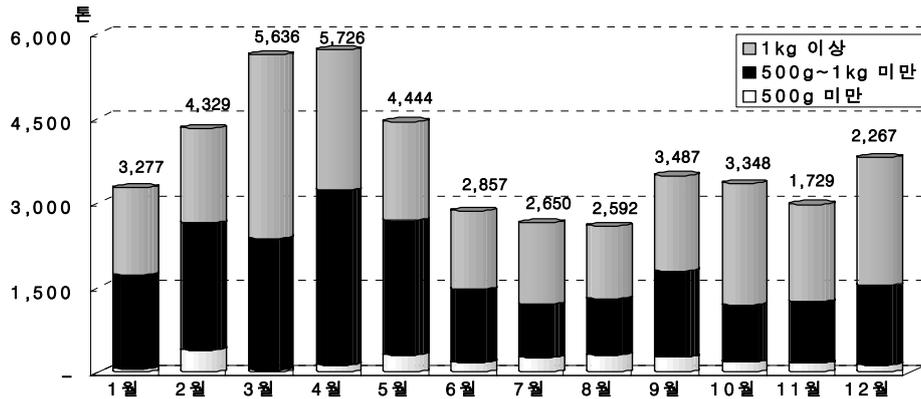
71.7% 증가, 연도의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 증가한 것이다. 연말인 10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는 2003년의 동 기간과 비교하여 물량에서 6.5% 증가, 연도의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 감소하였다.

이는 2005년의 양식 넙치 총생산량이 2003년에 비해 8,800톤, 24.2%가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모순되는 결과이다. 2005년 3월과 4월의 출하량 증가는 총생산량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동 시기에는 4월과 5월의 입식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출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그러나 연말인 2005년 10월부터 12월

까지의 출하 동향은 총생산량의 증가에 비해 지나치게 위축되어 있다. 이는 동년 10월의 말라카이트그린 파동과 11월의 고래회충에 대한 오보로 인해 일어난 소비위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결국 당연히 출하되었어야 할 물량이 적체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출하량을 크기별로 보면, 2005년도 넙치 총생산량 45,133톤 중에서 500g~1kg 미만의 출하량은 20,070톤, 1kg 이상의 출하량은 22,679톤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 넙치 출하량을 보면, 제주가 42.8%를 차지하는 17,700톤, 완도는 32.3%

〈그림-2〉 2005년의 넙치 월별·크기별 출하량



자료 : 수산업관측센터 설문조사 결과.

인 13,362톤, 기타 지역은 24.8%인 10,263톤이 각각 출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주와 완도의 두 지역을 합한 출하량은 총생산량의 81.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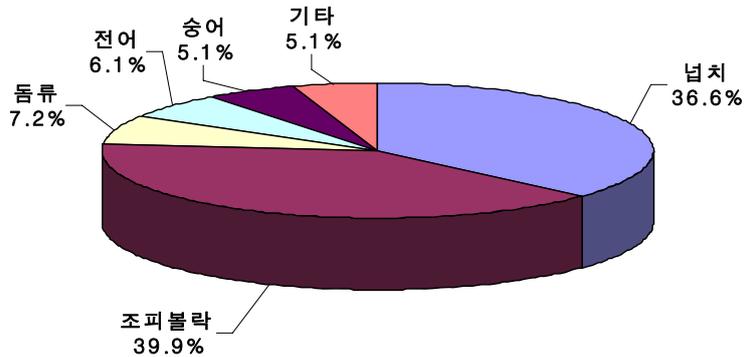
2005년에는 1마리당 1kg 미만 크기의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1마리당 500g 미만의 뼈째썰기(일명 세꼬시, 뼈꼬시) 용의 출하물량이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제주와 완도지역의 출하량이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완도지역의 500g 미만 크기의 출하량이 증가 추세이다. 이러한 크기별 출하동향은 비교적 후발산지인 완도지역에서 경영상태가 취약한 양식어가들이 자금압박 등의 이유로, 양성기간이 짧고 자금회전이 빠른 작은 크기의 넙치 출하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양성물량의 크기별 분포에 상당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2. 입식 동향

‘한국해산어류종묘협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종묘는 약 4억 8,800만 마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넙치 종묘의 생산량은 36.6%인 1억 7,860만 마리로 조피볼락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12월 말 기준으로 종묘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넙치 치어 물량은 2005년의 넙치 종묘 총생산량의 6.1%에 해당하는 2,090만 마리이다.

넙치 종묘의 생산량은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공급초과 상태이다. 게다가 넙치 종묘 업체 간의 과당경쟁으로 종묘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판매되지 못한 치어의 잔여물량 적체도 심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양식어가에서 출하되지 못한 물량이 수조에 적체되면서 밀식으로 인한 폐사율은 점점 높

<그림-3> 2005년의 국내 중요 총 생산량



자료 : 한국해산어류종묘협회 자체 조사 결과(2005년 12월 27일 기준).

<표-2> 연도별·월별 치어 입식량

단위 : 천 마리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4년	13,684	7,160	6,985	8,234	10,716	4,486	2,276	3,265	8,755	9,962	10,825	13,369	99,717
2005년	5,685	7,916	5,586	9,537	17,905	3,955	2,872	2,419	15,384	10,202	3,753	5,386	90,599

자료 : 수산업관측센터 설문조사 결과.

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연도별·월별 국내 넙치 종묘의 총 입식량은 수산업관측센터의 양식어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04년에 9,971만 7천 마리가 입식되었던 것이 2005년에는 전년대비 9.1% 감소한 9,059만 9천 마리가 입식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04년에 양식어가들이 입식량을 크게 늘리면서 보유 물량이 많아지자 2005년에는 치어 입식량을 줄였기 때문이다.

이를 월별로 보면, 2005년에 입식이 가장 많았던 달은 5월과 9월이었으며, 이는 전년도 1월과 12월에 입식이 가장 많았던 것과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05년 1월과 연말인 11~12

월 3개월 간의 입식량은 1,482만 4천 마리로 전년 동기간에 비해 60.9% 적은 물량이다. 이처럼 2005년의 입식 동향은 일반적인 동향을 벗어나고 있으며, 특히 연말에 수산물의 식품안전성 문제로 인한 소비위축이 출하물량의 적체로 나타나면서 입식량의 대폭적인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3. 양성 동향

다음의 <표-3>은 2005년 12월 말의 크기별 넙치 보유물량을 전년 동월과 비교한 것으로, 2004년도 12월 말에 8,264만 마리였던 것이 2005년

〈표-3〉

연도별 양식 넙치의 양성 물량 동향

단위 : 천 마리

구분	2004년 12월 말	2005년 12월 말	증감 현황
250g 미만	44,833	35,540	-20.7
250~500g 미만	12,161	16,420	35.0
500g~1kg 미만	19,128	32,850	71.7
1kg 이상	6,527	6,700	2.7
합 계	82,649	91,510	10.7

자료 : 수산업관측센터 추정치.

12월 말에는 9,151만 마리로 1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 크기별로는 1마리당 250g 미만의 크기가 전년 동월에 비해 20.7% 감소한 3,554만 마리로 조사된 반면, 그 외 크기에서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마리당 250g 미만 크기의 물량이 전년 동월에 비해 적었던 것은 같은 해 출하물량의 적체가 심해지면서 입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편 1마리당 500g~1kg 크기의 양성 물량이 전년 동월에 비해 71.7%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크기의 양성물량은 이듬해 전반기에 출하될 물량으로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1마리당 500g~1kg 미만 크기의 보유물량은 2006년 4~5월경에 출하가 예상되는 것으로 가격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아주 크다.

뒤에 자세히 언급되겠지만, 2005년의 평균 산지가격은 2004년에 비해 평균 13.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출하물량의 증가이다. 따라서 2005년의 연말 보유물량이 전년 동월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2006년에도 가격하락세가 지속되거나 혹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수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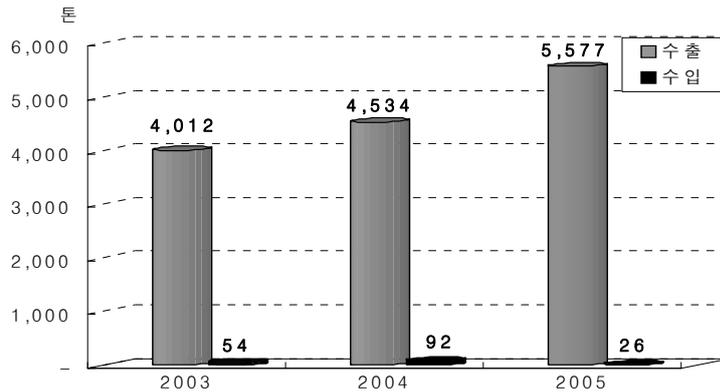
양식 넙치의 수출 물량은 2000년의 2,345톤을 전환점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2003년에 4,012톤이 수출되었으며, 2004년에는 전년 대비 13.0%가 증가한 4,534톤을 수출하였다. 또한, 2005년에는 전년 대비 23.0% 증가한 5,577톤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양식넙치의 수출량 증가추세는 일본산 넙치에 비해 가격 우위에 있고, 중국산 넙치에 비해서는 품질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05년에는 제주산 양식 넙치의 수출량이 5,300톤을 넘어섰으며, 이는 동년 전체 넙치 수출물량의 95%, 2000년 수출물량에 비해서는 126.0% 증가한 것이다.

한편 2004년 활넙치의 연평균 수출단가는 kg당 12.1달러였으나, 2005년 11월 말 현재 연평균 단가는 kg당 11.2달러로 전년 동 기간에 비해 7.4% 하락한 것이다. 이는 엔화 약세의 영향으로 인한 수출단가의 하락이기도 하지만, 국내 가격의 하락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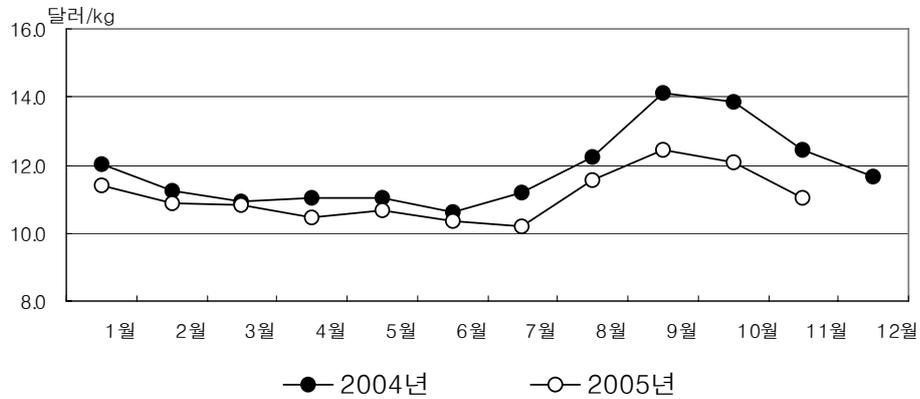
반면 넙치의 수입은 2003년의 54톤에서 2004년에는 92톤으로 70.4% 증가하였다. 하지만

〈그림-4〉 연도별 넙치의 수출입량 현황



자료 : 수출은 관세청 통계자료, 수입은 품질검사원 수입검사실적 자료.

〈그림-5〉 연도별·월별 넙치의 수출 단가 추이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계」, 각 년도.

2005년도에는 전년 대비 71.7%가 감소한 26톤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산 넙치가 말라카이트그린 파동

과 수산물의 안전성 문제 제기로 인해 수입량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III. 양식 넙치의 가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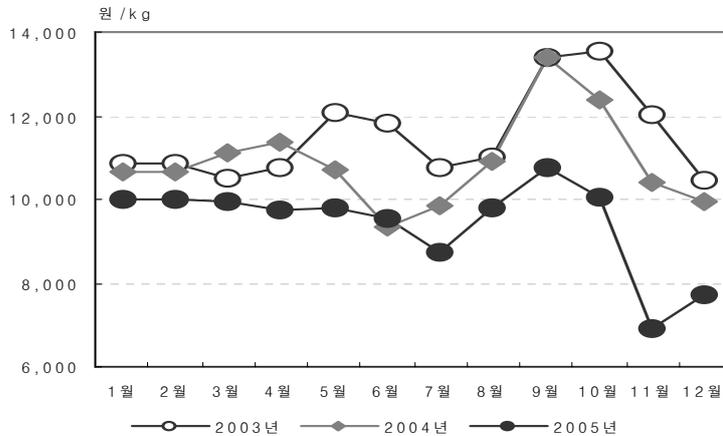
넙치 양식업은 완도지역을 중심으로 2000년대 초반에 신규 진입자들이 대폭 증가하면서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2004년 이후 가격 침체가 지속되면서 양식어가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앞서 살펴본 생산동향을 바탕으로 최근 활넙치 산지가격 동향과 가격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2003년의 kg당 양식 넙치 평균 산지가격은 11,475원으로 최근 3년 동안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였으며, 이후 2004년에는 전년 대비 평균 5.5% 하락한 kg당 10,846원이었다. 그리고 2005년에는 하락폭이 더욱 커져 전년 대비 13.8%, 2003년에 비해서는 18.5% 하락한 kg당 9,350원으로 최근 3년 동안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하였다.

특히 2005년에는 7월까지 하락세를 지속하던 산지가격이 9월에 들어서면서 kg당 10,781원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10월부터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여 11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33.6% 하락한 kg당 6,902원으로 최근 3년간의 월별 거래가격 중에서 최저가를 기록하였다. 이는 10월

〈그림-6〉 최근 3년간 활넙치 산지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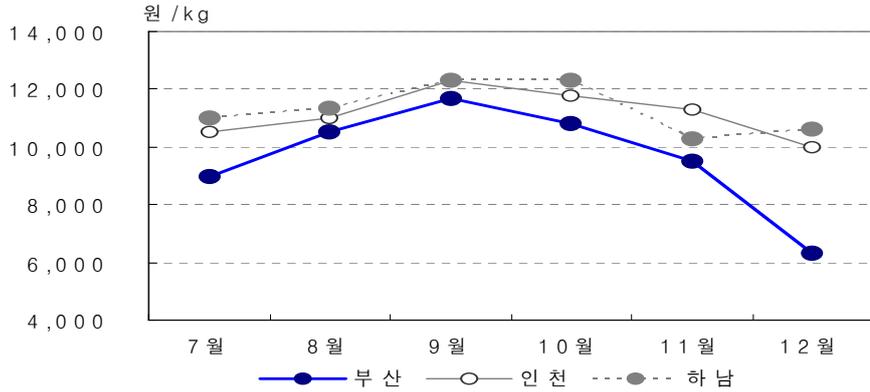
자료 : 각 지역 해수어류 양식수협, 각 년도.

〈표-4〉 양식 넙치의 원인별 산지가격 동향

단위 : 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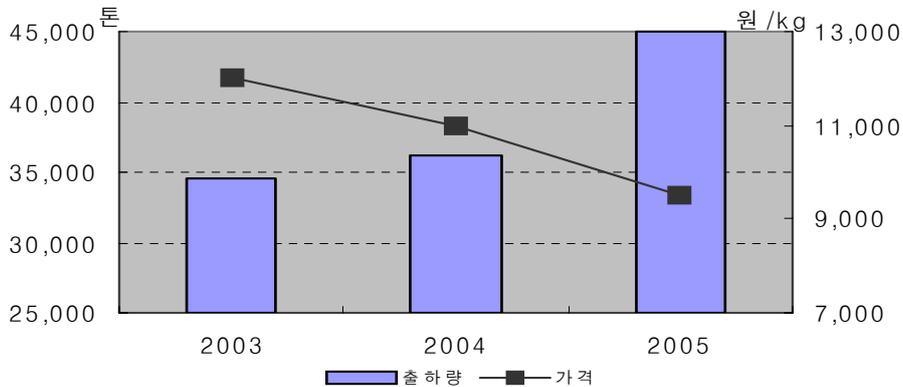
구분	1~9월	10월	11월	12월
2004년	10,861	12,382	10,394	9,940
2005년	9,857	10,038	6,902	7,745
증감율(%)	-9.2	-18.9	-33.6	-22.1
원인	출하량, 양성물량 증가	말라카이트그린 사태	고래회충 오보	고래회충오보, 연말 소비 감소
출하량 증감	△	△		▼

〈그림-7〉 시장별 월별 활넙치의 도매가격 추이(2005년 하반기)



주 : 1) 900g~1.0kg 크기의 kg당 가격임.
 2) 부산은 민락동 활어도매조합, 인천은 인천활어도매조합, 하남은 미사리활어도매조합임.
 자료 : 수산업관측센터 조사가격, 매월 20일 잠정치 가격임.

〈그림-8〉 넙치 가격과 생산량의 관계



자료 : 1) 2003년은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
 2) 2004, 2005년은 수산업관측센터 추정치.

에 발생한 말라카이트그린 사태와 그 뒤를 이어 발생한 고래회충 오보로 인한 식품 안전성 문제가 소비심리를 크게 위축시켰기 때문이다. 동년 12월에는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하기는 했으나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가격을 형성하였다.

도매가격의 경우에도 2005년 9월까지 전년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10월 이후 하

락세로 반전되어 11월 이후부터는 하락폭이 더욱 커졌다. 도매가격의 경우 산지와는 달리 식품 안전성 문제가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양식 넙치의 가격이 2005년에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생산량의 급속한 증가, 또 하나는 식품 안전성 문제로 인한 소비위축이다. 식품 안전성 문제로 인한 소비위축은 이전에도 있어왔지만 지속적인 경향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단지 2005년 말의 경우 그 규모가 더 크고,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양식 넙치의 생산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은 근본적인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 한 그 여파가 지속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림-8>는 최근 3년간 넙치의 생산량과 가격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최근 3년간의 양식 넙치 산지가격에서 2003년이 가장 높았던 이유는 동년의 태풍 '매미'와 적조로 인한 대형 피해로 조피볼락의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조피볼락의 수요가 넙치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조피볼락의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양식 넙치의 생산량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넙치의 산지가격은 하락세를 보이는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IV. 2006년 전반기 수급 전망

이상에서 살펴본 넙치의 수급동향을 간단히 정리한 것이 <표-5>이다. 2005년은 전년에 비해 입식량이 다소 감소한 것 이외에는 출하량과 양

성량, 수출량이 모두 증가하였고 수입량은 감소하였다. 또한 산지가격은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결국 투입요소인 입식량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출요소인 출하량과 수출량이 증가하였고, 2005년 말의 잔존 양성물량은 전년도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그 결과가 산지가격의 하락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 전반기의 출하가능물량을 추정³⁾해보면 다음과 같다. 출하가능물량의 추정을 위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성육된 크기별 출하 가능물량을 추정하고, 여기에서 동 기간 동안 출하된 크기별 물량의 합을 제한된다. 이 때 성육물량은 추정기간이 시작될 때의 크기별 양성물량에 성육계수를 곱하고 폐사율을 적용해주는 것으로 산출할 수 있다. 이를 추정식⁴⁾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Q_a = (1 - \delta) \times \hat{\alpha} X_a - \sum_{i=1}^n N_a$$

- 여기서 Qa : 출하가능물량
- $\hat{\alpha}$: 해당 기간의 성육계수
- δ : 해당 기간의 폐사율
- Xa : 최초의 크기별 양성물량
- Na : 해당 월 말의 크기별 출하량

3) 여기에서 출하량이 아닌 출하가능물량을 추정하는 이유는 어류양식업의 특성상 일정 기간 동안 재고보유가 가능하고, 크기에 따라 용도별로 출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식 등 지속적 출하를 위한 양성준비의 필요성과 출하규격을 넘어서는 크기의 물량보유가 힘들어 1kg 이상 크기 성어의 장기보유는 곤란하므로 출하가능물량의 정도를 보고 물량적 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4) 여기에서 사용된 추정식은 출하가능물량의 추정을 위해 단순화된 것이다.

〈표-5〉 양식 넙치의 수급동향

단위 : 톤, 천 마리, %

구 분		2004년	2005년	증감율	Sign
생산	입식량(천 미)	99,717	90,599	-9.0	□□
	양성량(천 미)	82,649	91,510	11.0	↑
	출하량(M/T)	35,806	45,134	26.0	↑
수출입	수출(M/T)	4,534	5,577	23.0	↑
	수입(M/T)	92	26	-72.0	□□
가격	산지(원/kg)	10,846	9,350	-13.8	□□

자료 : 1) 생산은 수산업관측센터 추정치.
 2) 수출입은 관세청 자료.
 3) 가격은 각 해수어류양식수협.

〈표-6〉 2006년 전반기의 초과 출하가능물량 추정치

구 분		양성물량(천 마리)			전년 동월 대비 출하물량(톤) (‘06년 4월말)
		‘04년 12월 (A)	‘05년 12월 (B)	B-A	
합계		37,816	55,970	18,154	15,113
규격	500g 미만	12,161	16,420	4,259	2,555
	500g~1kg 미만	19,128	32,850	13,722	12,350
	1kg 이상	6,527	6,700	173	208

자료 : 수산업관측센터 추정치.

추정에 사용된 자료는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몇 가지 제한을 두었다. 먼저 2006년의 출하량 추정기간은 정확한 월별 입식 물량을 알 수가 없고, 특히 5월의 집중 치어 입식시기의 물량이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4월 말까지로 제한하였다. 크기별 양성물량 중에서 전반기에 출하 가능한 것으로 마리당 750g~1kg의 크기로 한정하였으며, 성육계수와 폐사율은 수산업관측센터의 설문결과를 토대로 각각 20%와 10%로 설정하였다. 월별 출하량은 전년 동월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2006년 전반기의 출하가능물량은 4월 까지 전년 동월 수준의 출하량을 유지한다고 보

았을 때, 치어의 집중 입식시기 직전인 4월 말에 전년 동월보다 1,511만 3천 톤을 초과 보유할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2006년 4월 이후에도 초과 발생물량을 재고로서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계속 보유할 경우 수조가 빈 곳이 없어 당장 5월부터 치어의 신규 입식이 곤란하게 되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출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출하가능물량의 증가는 시장에 대한 공급량의 증가로 나타나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량의 경우 당분간 국내가격이 크게 회복될 기미가 없고, 엔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어 수출보다는 내수용 판매를 선호하는 경향이 지속

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원화 절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계속될 전망이어서 수출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소비량의 경우 최근 증가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실제로 소비가 증가하였다면 가격이 하락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따라서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적절한 물량을 초과해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최근 수산업관측센터에서 추정 한 바에 따르면 조피볼락의 경우에도 2006년 출하물량에 큰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에 대한 초과공급의 여지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최근 해양수산부는 해산 양식어류의 생산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활어수매, 소비 진작, 수산업관측정보의 활용, 유통협약의 추진, 식품 안전성 강화 등이다. 또한 제주도의 경우 국내 출하용 넙치에 대해서도 수출용과 같이 식품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등 일련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활어 수급에 대한 각종 대책이 수립되는 이면에는 문제에 대한 사전 인식과 이에 대한 정부와 생산자 단체의 문제 극복에 대한 의지가 내재되어 있다. 수산업관측사업의 목적 또한 생산자들의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조장하고, 정부의 수급정책에 대한 뒷받침, 그리고 문제의 사전진단 및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수급문제에 한발 앞서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으로 양식어류의 수급조절과 가격지지는 크게 두 가지의 방향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 하나는 자율적인 수급조절이고, 또 하나는 식품 안전성을 포함한 소비 진작이다. 여기에서 우선되어야 할 것이 생산량의 조정이다.

자율적인 생산량 조절의 대표적인 수단에는 유통협약이 있다. 유통협약은 생산자들의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통해 가격을 제고하는 방법이다. 정부 주도에 의한 생산조정은 한계가 있고, 생산자와 정부의 협력 없는 생산조정은 성과를 거두기가 힘들다. 사실 김의 경우 지속적인 어장 정비와 유통협약 등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05년도의 생산량이 2003년에 비해 13.5%나 감소하였다. 그 결과 2005년산 산지 물김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32.4% 상승하였다. 결국 생산량의 조절을 통해 낮은 수준에서 허덕이던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이다.

이전에는 어업인들이나 관련자들이 자율적인 수급조절이라는 것을 별로 믿지 않았다. 아마 불가능한 헛소리쯤으로 치부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도로 김 양식 시설량이 줄어들고, 일부 선도자들에 의해 김 양식업에 유통협약이 도입되면서 그 효과는 바로 가격에 반영되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김 양식 어업인들이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동참했다는 점이다.

지금은 여러 지자체에서 김 유통협약을 체결하려고 준비 중이다. 물론, 넙치의 경우에도 완도에서 도입을 시도하고 있고, 제주에서도 도입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양식 넙치는 이 두 지역이 전체 생산량의 약 70% 이상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 조절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한

가격 제고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식품안전성을 포함한 소비 진작의 경우, 대표적인 사례로 김을 들 수 있다. 수산업관측센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5년에 김이 건강에 좋다는 것이 TV에 방영되면서 설문에 응답한 199명의 소비자 중 78.3%가 '이전보다 김을 더 자주 먹는다'고 응답하여 소비자의 인식변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었다. 또한 동일 설문조사에서 향후 식품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활어회를 소비하겠느냐는 질문에 80.4%가 '소비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여 소비자들이 식품안전성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급문제에 있어서 생산자들은 자율적인 수급조절과 식품안전성에 대한 노력, 정부는 홍보와 소비자의 인식 전환, 기타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노력한다면 앞으로 수급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더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의 노력에 수산업관측사업의 진단 기능과 모니터링 기능이 더해진다면 더 큰 상승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수산업관측센터의 추정치로 정부의 공식통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는 국내 육상수조식 넙치양식의 생산통계에 사용되는 양식수조의 총면적, 투입치어량, 출하량의 산출근거와 조사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참 고 문 헌

1. 부경대학교, 양식품종별(넙치, 조피볼락) 경제성 분석 - 육상수조식 넙치양식을 중심으로, 2005. 12.
 2. 수산업관측센터, 「넙치 관측월보」, 각호.
 3. 수산업관측센터, 「수산물 수급정보」, 각호.
 4.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연보」, 각 년도.
- ※ 본 고의 집필에 사용된 생산관련 자료는